전남도, 5개 기업 2조5천억 투자 유치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을 위해 개최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민선8기 1주년 기념 전남의 투자 유치 가속화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한화, 여수산단에 질산 공장 건설
창억, 영광에 떡 제조공장 신설 등 2125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가 28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화 글로벌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병윤 베스타스 부사장, 하운식 GE리뉴어블에너지 사장, 임효성 ㈜효성 상무, 노형섭 일진전기 전무, 박상훈 HD현대일렉트릭 전무, 이성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수도권 소재 기업과 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전남의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주), ㈜창억, ㈜바른디앤디, ㈜포스코퓨처엠 등 5개 기업과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해 2125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여수 국가산단 일원 13만㎡(4만 평)에 연간 40만t 규모의 질산 공장을 건설하고 바이오·반도체 소재 및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수소·CCS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GS바이오는 2024년까지 여수 국가산단에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증설할 예정이다.

창억은 영광에 2029년까지 쌀가루 및 떡 제조 관련 공장을 신설하고, 바른디앤디는 2027년까지 호텔&리조트를 건립하며,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서 이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투자협약에 이어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를 통해 주력사업인 첨단소재,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선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대비, 미래형 신기술로 주목받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MG)사업 추진 계획과, 에너지밸리 추진 현황 및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분야 맞춤형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남해안 역사문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 최적의 발전 여건을 갖춘 기회와 희망의 땅, 전남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투자환경 및 강점을 부각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트피크닉·야시장… 주말 광주엔 문화 가득

문화행사 다채…아트 궁동·프린지페스티벌·광주FC 경기 등

광주시가 함께 나들이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말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 전역에서 문화예술 체험과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피크닉'이 열리고 있다. 7월 1일에는 중외공원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아트스테이지, 상상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7월 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는 '아트 궁동' 축제도 개최한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 궁동'이라는 주제로 일일 강좌, 벼룩시장, 야외 공연 등이 펼쳐진다.

대인예술시장에서는 지난 23일 '남도 달밤 야시장'이 개장했다. 무더운 8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한평갤러리, 길위의 문화공연, 별별 상상정원 등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지맵·GMAP) 야외 공연장에서는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 콘서트 '사운드 가든'이 펼쳐진다.

실내에서는 관객의 그림자와 작품이 상호 교감하는 증강현실 작품 '문준용:별을 좇는 그림자들'을 선보인다.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도 오는 7월 9일까지 이어진다. 본 전시관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광주시립미술관·GMAP·양림미술관·이강하미술관 등에서도 9개국 파빌리온(특별관) 전시가 열린다.

7월 7~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제12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차지하고 한 시즌 만에 K리그1로 복귀한 광주FC 홈경기도 7월 2일(광주-울산), 7월 15일(광주-대구), 8월 4일(광주-대전), 8월 27일(광주-수원) 열린다.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광주에서 주말 나들이하며 더위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길 추천한다"며 "시민의 행복한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 흥미롭고 유쾌한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위 다음달 출범

道, 유치 전담반 회의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7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분기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효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 분과별 위원 19명이 참석해 그동안 의대 유치 건의 및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되는 상황에 맞춰 '전남 도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유치 활동 전개 방안에 집중했다.

전담반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국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 및 설득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7월 중 지역의 의대 유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취약한 의료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 정책연대를 통해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하는 유치 활동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조성을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다중이용시설 스팟 영상 홍보 등 수도권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준비 '착착'

10·11월 개최…연출자문위 회의

전남도가 지난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전 국민 화합·감동 체전으로 이끌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과 연출, 공연, 디자인, 문화예술, 미디어,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0여 명의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이 참석해 연출 방향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명성 총감독은 시청각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통해 "개·폐회식은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체계를 활용해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주제 공연 등과 연계한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만물의 원천인 생명을 깨우고 지키고 이어감을 울림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압축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오는 10월 13일, 폐회식은 10월 19일에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1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쌀 '빛찬들' 첫 호주·뉴질랜드행

18t 규모…김치 등 3종 동반 수출

광주 쌀이 호주, 뉴질랜드에 첫 선을 보인다.

광주시는 28일 광주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광주 '빛찬들' 쌀 18t을 호주, 뉴질랜드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광주시 관계자,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지역 농식품수출협의회 수출기업 및 유통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빛찬들 쌀은 총 18t(840포/20㎏ 기준), 3400만원 상당이다. 또 한국제다 차류 3종(300만원), ㈜뜨레찬 김치류 3.5t(1000만원), 느린마을 부각류(200만원) 등 총 3개 품종(1500만원)이 동반 수출된다.

이날 선적된 쌀은 29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방역을 거쳐 7월 11일 호주, 뉴질랜드로 향한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세 차례 추가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한 빛고을농식품수출협의회는 광주시에서 지원한 국내외 박람회, 마케팅사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 농식품기업 9곳이 올해 5월 설립한 단체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물류비 지원 등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 2명 지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에 2명이 지원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연구기관 연구원 출신 2명이 응모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시의회가 인사 청문을 하지 않기로 할 경우 절차는 생략된다. 임기는 3년, 보수는 광주시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